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감정의 관계 : 도덕적 self로서의 염치(廉恥)와 도덕적 감정으로서의 부끄러움 분석*

김시업[†] · 김기범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문화에 따른 보상분배 규범의 선호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단 문화차이를 실제의 문화 간 차이나 민족 간의 차이가 아닌 개인차 변인으로 알아보기로 하였다. 연구 1에서는 피험자들을 집합주의적 성향인과 개인주의적 성향인으로 구분하기 위해 Triandis와 Gelfand(1998)가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투입(심리적) 요인으로 두 공동작업자의 상대적 노력크기를 조작하였고, 개인차 변인으로는 피험자들 그들의 집합주의 및 개인주의 점수에 따라 분류하여 각 조건에서 분배형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집합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람에 비해 형평규범에 가까운 분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성세대에 비해 신세대는 더 개인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세대는 구세대보다 형평규범을 선호할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투입의 종류를 능력과 노력으로 구분하여 어떤 투입에서 어떤 분배규범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2의 주요 결과는 첫째, 능력보다는 노력에서 형평 분배규범이 잘 적용되고 있었다. 이런 경향성은 신세대인 대학생에게서 두드러졌다. 둘째, 노력의 경우 대학생과 직장인 모두에서 형평규범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장인에게서는 능력의 경우도 형평규범을 따르고 있었다. 예상과 달리 두 집단 모두에서 대체로 형평과 균등규범의 중간 형태의 분배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도덕적 판단, 도덕적 감정, 도덕적 평가, 염치, 부끄러움

지금까지의 도덕성(morality)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들 관한 연구들이 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은 인지적 발달에 기초한 접근들과 이론들이 주류를 이 일반적으로 서구 문화권에서는 Piaget(1932, 1965)와 그 루었으나, 도덕적 행위 및 의식에 대한 문화적 영향에 의 전통을 이어받은 Kohlberg(1981)의 도덕 추론에 관

* 본 논문심사를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과 분석에 도움을 준 중앙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김양하, 한준오, 백승경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 교신저자 : 김시업(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mind@kyonggi.ac.kr)

한 인지-발달적 혹은 인지-구조주의(cognitive structuralist) 접근이) 주류를 이루어 왔는데, 이를 보편적인 현상²⁾으로 보았다. Kohlberg는 도덕성을 인지적인 방법(cognitive method), 즉 이해 갈등관계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관점을 조정하는(coordinating) 논리(logic)로 규정하였고, 도덕적 추론은 예측가능한 개체발생적 발달 형태를 따르며, 이러한 형태를 잘 알려진 단계이론으로 제안하였다. Kohlberg의 관점에서 보면 도덕 발달의 이러한 개체발생적 형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그러한 도덕적 추론은 세상을 보는 관점과는 무관하다(Bergman, 2002)는 주장이었다.³⁾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도덕적 행위에 충분한 주의 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이유는 인지 발달적 관점이 도덕적 추론과 그것의 구조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덕성의 인지적 발달 이론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게 되고, 도덕적 추론과정에서의 사회의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언급하게 되면서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인지 발달적 관점에 반하는 심리학 및 인류학적 접근들 중에는, 해(악)(harm)⁴⁾에 근거한 도덕성을 문화 혹은 계층 특수적

현상으로 본 연구(Haidt, Koller, & Dias, 1993 등), 인도 문화권과 미국과의 도움행동의 도덕적 의무(obligation)에 관한 연구(Baron & Miller, 2000; Miller & Bersoff, 1994), 한국과 일본의 사회정의 및 도덕성의 비교 연구(Kim & Yamaguchi, 1996), 그 밖의 비교문화 혹은 문화심리학적 접근들(Dien, 1997; Haste, 1993; Miller & Bersoff, 1998; Montada, 1993; Shweder, 1991; Shweder & Haidt, 1993; Wren & Noam, 1993)이 있고, 이들은 모두 도덕성의 영역(code)이 각 문화권마다 서구 문화권에서 주장하는 권리(rights)나 정의(jus-tice)의 차원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접근들은, 일반적으로, 각 문화 맥락에서의 자기(self) 개념과 대인관계 상호작용에 따라 도덕적 추론 및 판단이 다르게 형성되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관계주의를 강조하는 유교문화권인 한국사회에서는 어떤 행위가 옳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행위가 잘못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준거는 그 사람에게 있다고 보고 있는데, 최상진과 김기범(1999)은 한국인의 자기개념이 서구 사람들과는 달리 관계-맥락적이라고 보고, 이를 추론적인 마음-자기(inferential mind-self)로 규정하여 설명하였는 바, 이는 행위의 주체가 곧 사람이며, 사람의 마음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또한 김기범, 최상진, 2002; 최상진, 2000). 또한 한국 문화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보면 개인의 주체성이나 자율성에 근거한 도덕성 발달을 강조하기보다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학교에서의 친구나 동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대인관계 윤리적 도덕성을 강조하고 이를 내재화시키고 있다. 사회적 담론 또한 대인간의 관계윤리나 인간성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 혹은 좋고 나쁨' 등의 도덕적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와 개인의 자기개념, 사람관, 도덕관 등은 부모-자녀 관계, 친구들간의 상호작용 등 사회적 상호작용속에서 서로 변증법적으로 영향을 미쳐 내재화되거나 언행 등의 형태로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개념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각 문화권 사람들의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 즉 세계관(worldview)이 다르기

1) 사회가 분업화됨에 따라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관(worldview)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다른 세상관은 다른 형태의 도덕적 추론을 불러일으킨다. 낮은 사회적 계급의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매우 강하게 동일시를 하고, 이 집단 의식은 도덕적인 법을 초월적이고, 절대적이며 어길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반면에 높은 사회적 계급의 사람들의 집단 의식은 사라지고 구성원들은 개인차를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며,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Durkheim의 주장을 Piaget(1932, 1965)는 Durkheim이 도덕적 추론의 발달적 측면을 간과했다는 이유로 비판하면서, 아이들이 초기 아동기에 다른 사람들의 도덕 규칙을 따라다가 아동기 중기 민주적 과정에 의한 도덕적 규칙을 따르는 단계로 발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기에 도덕성은 행동 규칙을 따른다기보다는 규칙에 담은 방법으로서 규정된다. 따라서 Piaget의 입장은 도덕적 추론의 개체발생적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Kohlberg와 Piaget의 도덕성에 관한 단계 발달 이론(혹은 인지발달적 관점)은 도덕적 추론(moral reasoning)이 문화 보편적이라고 보고 있다. 1996년에 Moral Psychology라는 책을 쓴 Lapsley는 도덕 심리학이 해야 할 일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보편적인 도덕성 영역을 찾는 것이고, 도덕성은 사람들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Brabeck, 1997).

3) 따라서, 서구문화권에서는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합리성으로 보고 있다.

4) 해(악)는 심리적인 해로움(harm), 불공평(injustice)과 권리에 대한 침해(violations of rights)를 포함하여 구성된 개념이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Dien, 1997; Jensen, 1997; Miller, 1997). 이러한 세상을 보는 관점은 도덕적 추론(왜 어떤 행동이 옳은지 혹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에 기저하는 전제들을 제공하고, 도덕적 추론의 결과는 행동을 평가하는 도덕적 평가(어떤 행동이 잘 된 것인지 혹은 잘못된 것인지의 여부)이며, 도덕적 행동은 부분적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유지한다(Dien, 1998; Jensen, 1997; Miller, 1997)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각 문화나 사회 구성원들의 세상관(worldview) 및 인간관, 사회적 상황과 대인관계에서의 자기개념, 도덕적 평가나 판단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도덕적 준거 및 추론과정을 고려해야만 한다. 더불어, 도덕적 준거와 추론과정에서의 평가나 판단에 따른 혹은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 반응 및 행동과의 관계 등을 연구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 문화에서의 자기 개념과 도덕성과의 관계, 도덕적 자기로서의 염치와 도덕적 정서로서의 부끄러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인의 도덕적 self : 염치있는 사람과 염치없는 사람

동, 서양을 막론하고 “사람(person)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든가, “어떤 것은 해야하고 또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왔다. 이러한 전통은 각 문화권의 철학적 배경 및 사람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을 비롯한 유교문화권에서도 “사람은 어떠해야한다”라는 윤리규범이 있어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람과 사람간의 지켜야 하는 도리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 윤리는 삼강오륜에 그대로 드러나 있고,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Sternberg, 1982). 따라서 한국인들은 사람과 사람간의 지켜야 할 도리를 사람으로 태어나 마땅히 해야할 의무이자 책임으로 여겨왔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지킬 때 다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며, 친구에게 신의를 지키는 행위는 곧 예를 다하는 인간의 도리이고,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사람됨됨이라는 도덕적 인격과 연

계되는 행위의 도덕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리를 다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혹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게 된다(김기범, 김경호, 2002; 한규석, 최송헌, 정옥, 2001).

다시 말해, ‘착한’ 혹은 ‘된(좋은)’ 사람은 도덕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고, 유교에서는 이러한 도덕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은 예의염치(禮義廉恥)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최상진, 김기범, 2000).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예(禮)를 갖추지 못하거나, 의(義)를 행하지 않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염치(廉恥)가 없는 사람이라 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보고 ‘나쁜’ 사람 혹은 ‘못된’ 사람이라고 한다. 여기서 염치라 함은 체면을 차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뜻한다. 따라서, 특히 대인관계 맥락에서 예를 갖추고 의를 행하는 염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행위의 주체는 바로 염치라 할 수 있고, 이는 한국인의 도덕적 자기라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대인관계에서 예를 갖추지 않거나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을 염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염치가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신분이나 역할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사람 즉 비도덕적인 사람이며,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조차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즉 염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서구 문화권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속에서 곧 인간(human being)을 뜻하는 것이나, 학문적으로 사람은 심리학적 범주인 반면에 인간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범주로 분류되고 있다⁵⁾. 역사적으로, 사람이라는 말은 합리적 존재로서의 개체(an individual substance of a rational nature)로 규정된다. 역사와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온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능력이나 인간성 및 선호

5) Rogers의 책 「On becoming a person」(1961)에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방법(how to understand scientifically what it is to become a person)에 대해 논하고 있다(Barresi, 1999).

등의 특성을 갖고 있는 독특한 개체(unique individual)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사람들을 사람처럼 만들고, 사람들이 그들이 느끼는 방식이나 혹은 행동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게다가, 이러한 특성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혹은 일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서구 문화권에서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 물질계 진실과 분리된 자신의 심리적 공간 내에 함유된 개체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독특한 생각,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도덕적 주체로 규정되고 있다(Burr, 2002, pp. 4-8; Lidz, 1968, pp. 7-13).

도덕적 판단 주체로서의 염치6)와 도덕적 정서로서의 부끄러움

최근 들어, 도덕성에 관련된 연구들 중 정서7)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고미숙, 2000; 정미연, 정옥분, 2001; 한명희, 1979; Eisenberg, 2000; Haidt et al., 1993; Montada, 1993 등)이 많은데, 예를 들면, Haidt 등(1993)은 도덕성과 정서 및 문화에 관한 연구에서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도덕적 각본(scripts)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feel wrong) 무례함(disrespectful) 혹은 메스꺼움(disgusting) 등과 같은 정서를 예를 들고 있다. 무례함의 경우, 이것을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구성되거나 합의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또한 Velleman, 1999). 메스꺼움을 느끼는 것은 도덕성의 또 다른 감정적 요소로 보고 있는데, 모든 인간 문화가 음식과 성(性)에 대한 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가 정신의 순수함을 이끄는 동기적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밖에 Eisenberg (2000)의 경우, 도덕적 정서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통해 자의식적 도덕 정서로 난처함(embarrassment),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그리고 친사회적/반사회적 행동과 감

정이입(empathy)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서는 사람들이 특정한 맥락에서 도덕적 특성을 구별하고, 도덕적 행위를 동기화하며 비도덕적 행위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도덕성에 관련된 정서는 각 개인의 자기에 대한 평가와 이해에 기본적으로기 때문에 자의식적 정서(self-conscious emotion)라 불린다(Eisenberg, 2000).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보고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혹은 분노를 느낀다면 이것은 그 사람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를 위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서는 어떠한 사실이나 현실에 의해 각성되거나 유발된 것이고, 개인이 관여된 것이므로 그러한 관여됨은 그 개인에게 중요한 것이며, 진정한(authentic)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이에 대한 평가나 판단 혹은 명명과 같은 인지적 과정이 수반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어떠한 인지적 동일할 것이 아니라 인지를 암시하거나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 도덕적 정서의 인지적 측면은 개인의 도덕적 규칙에 대한 인지,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규범을 위배하거나 지켰는가에 대한 인지 그리고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인지들로 구성된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를 위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심리학에서 도덕적 가치(moral norms)는 이론적 개념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는 도덕적 가치들이 사람들한테 물어봄으로써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하거나 혹은 측정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에, 그것들의 존재와 내용은 사람들이 채택하고, 내재화하고 구성한 도덕적 가치들로부터 결과되어지는 관찰 가능한 자료들로부터 추론되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도덕적 규칙이 심리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는 도덕 규범에 대한 지식, 규범에 따른 행동, 도덕적 추론 등이 아니라 도덕적 정서라 할 수 있다(Montada, 1993, pp. 292-294).

일반 사람들이 일상의 활동속에서 느끼는 혹은 그러한 활동을 보고 느끼는,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은 잘못되었다 든가, 바람직하다 든가, 혹은 죄책감 내지 부끄러움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화가 난다는 것은 도덕적 당

6) 염치(廉恥)의 사전적 의미는 체면을 차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한글학회, 1994,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으로 정의되고 있다.

7) We can conceive of emotions as a specific category of evaluations based on cognitions of an object or a situation (Montada, 1993).

위(oughts)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정서는 도덕적 판단에서 평가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도덕적 주체로서의 사람에 대한 판단이며 평가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도덕적 정서에 관한 연구들은 도덕적 규범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나 감탄이나 칭찬 등의 긍정적인 정서에 관한 것도 있지만, 도덕 규범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끄러움이라 할 수 있다. 부끄러움은 흔히 죄책감⁸⁾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왔는데, 최근 들어 자기와 관련된 혐오적인 사건들에 의해 각성된 낙담 혹은 실의에 근거한 수동적이거나 무력감을 느끼는 정서로 정의되어왔다 (Barrett, 1995; Eisenberg, 2000; Fisher & Tangney, 1991, 1995 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상진 등은 (2000) 체면과 관련하여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증거나 가치에 못미치기 때문에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면서 느끼는 자괴성 부끄러움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창피성 부끄러움으로 구분한 바 있다.

행위자가 자신의 외적 행동을 보고 그러한 행동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났다는 인식을 통해 자기 자신의 내적 품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을 때 생기는 감정으로서의 부끄러움은 행위자가 스스로 경험한 '염치(廉恥)' 마음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에서는 예의와 도덕의 기본 심성을 염치의 발달에 두고 있는데, 염치는 부끄러움을 이는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염치는 개인의 인간됨됨이를 관장하는 도덕적 자기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마음의 형태로 구현된다. 예를 들어, '마음이 언짢다',든가, '마음이 찻찻하다', '마음이 불편하다' 등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염치의 정서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도덕적 마음-자기로서의 염치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끄러움이나 수치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8) 김경희(2002)는 최근 연구를 통해 죄책감을 사회적 사건과 관련되어 본질적으로 개인의 도덕적 표준을 위반했을 때 생기는 부정적 정서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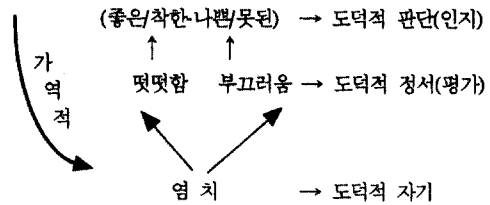


그림 1. 도덕적 마음 자기로서의 염치와 부끄러움의 관계

(Tangney, 1991).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구분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데, 자기의 특정한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수반되는 정서가 죄책감인 반면, 자기 자신 모두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수반되는 정서가 부끄러움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죄책감은 특정한 행위,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관련된 정서적 상태를 지칭하고, 부끄러움은 행위가 아닌 자기에 대한 부정적 정서 경험을 지칭한다(Tangney, 1995). 따라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자신을 비난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덕적 마음 자기로서의 염치와 도덕적 정서로서의 부끄러움 및 도덕적 판단과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대인관계 맥락에서 비도덕적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자는 나쁜 사람 혹은 못된 사람으로 평가받는데, 행위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 혹은 멋떳함을 느끼게 되고 이는 부끄러운 마음의 주체인 염치의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식의 역의 관계도 설정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행동이 나쁜 것이었거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윤리 및 규범에 따른 도덕성을 의미하는 염치와 부끄러움이라는 도덕적 정서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는 곧 염치가 있고 없음에 따라 그 사람의 인간성 즉 도덕성을 판단하게 된다는 한국 문화에서의 인간관과 세상관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정서로서 부끄러움은 도덕적 평가를 암시하는, 즉 내면의 도덕적 가치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1에서는 면접을 통해 비도덕적이라고 판단되는 행위와 정서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했고, 두 번째 연구에서는 부끄러운 행위가 비도덕적인지 알아보고자 했으며, 연구 3에서는 도덕성 관련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도덕적 판단과 정서적 반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들에게 정서적 반응과 그 이유를 측정하였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혹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면접을 실시한 이유는 대학생들이 어떠한 것을 어떤 근거로 도덕적인지 아니면 비도덕적인지를 판단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어떠한 감정(평가) 경험을 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방 법

조사대상자

서울 소재 종합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남 11명, 여 12명) 2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피면접자들의 평균 연령은 22세(남 23세, 여 22세)였고,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핵가족이었다. 종교는 불교가 7명(남 2명, 여 5명), 기독교 7명(남 2명, 여 5명), 무교 5명, 기타 3명이었다. 면접은 2002년 10월 14일부터 10월 17까지 실시되었고, 평균 면접시간은 약 10분이었다.

도구 및 절차

면접의 내용은 응답자들에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못된 일을 한 경험이 있었는지 묻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두 번째로 왜 그러한 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고, 세 번째로 그 때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는지를 말하도록 요구하였다.

결과 및 논의

23명을 대상을 실시한 면접 결과, 6명이 부모님과 있었던 일 중에, 5명이 친구와 있었던 일을, 그리고 10명이 타인과 함께 있었던 일 중에, 기타 동생이나 선생님

과 함께 있었던 일 중에 잘못된 일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한 여학생의 면접 내용을 보면, 친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일과 사회법규를 지키지 않은 일을 잘못했다고 생각한 경우인데, 잘못에 대한 이유로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았고, 친구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으며, 그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23명의 면접내용을 1차적으로 사건별, 이유, 감정별로 주제를 2명의 연구자가 정한 후 그 타당성을 비교하였고, 양자간 신뢰도(.80)를 측정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3차에 걸쳐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부모에게 반항했거나, 속이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등이었고, 친구관계에서는 험담이나 따돌림이, 타인관계에서는 절도나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에서 기대되는 행위 양식, 예를 들면 예절이나 도리 등을 지키지 못했을 때 도덕적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로는 사회규범을 어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자녀로서 지켜야 할 도리나, 부모를 속인 것, 친구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키지 못한 것,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잘못을 판단하는 이유를 들었다. 타인관계에서도 법규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를 포함하여 사회에서 요구되거나 바람직하게 생각되는 윤리적 측면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하였다.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응답했는데, 부모에게는 죄송스러움의 형태로, 친구 관계에서는 창피함으로, 타인관계에서는 부끄러움과 후회의 감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 볼 때,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의나 도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도덕적 가치가

9) 전체 반응 수를 분모로 하고 분석자 2인 간의 일치된 반응 수를 분자로 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일치된 반응 수/전체 반응수×100). 2차 분석시 신뢰도는 .89, 최종 분석시 신뢰도는 .90이었다.

대인관계 윤리에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잘못된 일에 대해 대부분이 부끄러움이 창피함 혹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죄송스러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정서는 대인관계에서 타인 지향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면접 내용 분석 결과

대상 항목	부모(6)	친구(5)	타인(12)
사건(일)	반항 2	협담 2	절도 4
	속임 2	마들림 2	예절 3
	짓말 1	배신 1	도리 3
	실망 1		속임 2
이유	도리 2	사회 규범 2	규범위반 5
	속임 2	상대입장(상처) 2	법규위반(피해) 3
	자기조절 실패 1	배신 1	의무(책임감) 1
	약속불이행 1		피해 1 권리침해 1 관계 1
감정	죄송스러움 3	창피함 2	부끄러움 5
	후회(죄책감) 2	죄책감 1	창피함 1
	역울함 1	후회 1	죄책감 부끄러움 1
		미안함 1	후회 3 미안함 1 죄송스러움 1

연구 2

두 번째 연구에서는 부끄럽게 생각되는 일의 종류와 그러한 일이 비도덕적인 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형태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부끄럽게 생각되는 이에 대해 자료를 수집한 이유는 그러한 일이 비도덕적인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방법

조사대상자

경기도와 서울 소재 종합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147명(남 97명, 여 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3세(남 24세, 여 22세)였고, 조사는 2002년 10월 16일부터 10월 17까지 실시되었다.

도구 및 절차

응답자들에게 일상의 경험속에서 응답자 자신들이 했던 일 중에 부끄럽게 여길만한 일들에 대해 기술하도록 요구하였다. 또 그러한 일들이 부끄럽게 생각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한 이유(justification)를 물어봄으로써 부끄럽고 부끄럽지 않음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기준이 개인의 도덕적 증거 혹은 사회적 도덕성 증거와의 어느 정도 일치하는 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 도덕적인지 혹은 비도덕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인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지의 여부와 그러한 행동에 대한 책임 여부와(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았다. 또한, 자의식적인 복잡한 정서로서의 부끄러움은 자기 지향적인 측면(self-directed or conscious aspect)과 타인 지향적인 측면(other-directed or conscious aspect)이 있는데, 한국 사회의 경우 자기보다는 타인 지향적인 혹은 의식적인 측면이 강할 것으로 생각되어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결과 및 논의

내용분석은 세 명의 연구 조원들이 1차적으로 내용을 유목화하여 분류한 후 토론을 거쳐 반응 내용들에 대한 유목범주의 타당성을 논함과 동시에 세 명간의 일치도(.66)를 알아본 후, 토론 내용을 반영하여 2차 분석 내용에 대한 신뢰도(.88)를 측정하였는데, 최종적인 유목화 범주에 대한 분석자간 신뢰도는 .90이었다.

부끄럽게 생각되는 일로는 타인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일, 예를 들어, 절도, 차비 안내기, 물건 파손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응답 148 중 62(41.89%)). 다음으로 사회규범을 위반했을 때(26/148)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질서를 안지켰거나, 시험볼 때 컨닝을 했거나, 성적 등을 조작했을 때이다(표 2 참조). 세 번째로 많은 응답 내용은 자기통제를 못한 행동(20/148)으로 술먹은 후 실수, 거짓말, 흡연이나 음란물 등이다. 네 번째는 타인에게 잘못했을 때인데, 예를 들어 친구한테 잘못했을 때, 약자를 괴롭혔을 때, 책임회피를 했을 때 등이다. 다섯 번째

는 대인관계에서 예의를 지키지 못했을 때로 결례를 했거나 대중 교통에서 자리양보를 하지 않았을 때 등으로 나타났다.

표 2. 부끄럽게 생각되는 일 응답 내용 및 빈도

응답 내용 및 범주	빈 도(%)
1. 타인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힘	62(41.89)
1) 절도	49(33.11)
타인(친구)의 물건을 훔친 것	
2) 모른척하고 그냥 갖기	6(4.05)
3) 차비 안낸 것	5(3.38)
4) 물건 파손	2(1.35)
2. 규범위반	26(17.57)
1) 질서 안지킨 것	15(10.14)
2) 컨닝	6(4.05)
3) 성적 조작	5(3.38)
3. 자기통제를 못한 행동	20(13.51)
1) 술먹은 후 행동	11(7.43)
2) 거짓말	5(3.38)
3) 흡연	2(1.35)
4) 음란	2(1.35)
4. 타인에게 잘못된 것	18(12.16)
1) 친구한테 잘못된 것	5(3.38)
2) 약자를 괴롭힌 것	8(5.41)
3) 책임전가, 회피	5(3.38)
5. 예의 없는 행동	16(10.8)
1) 결례	11(7.43)
2) 자리양보 하지 않음	5(3.38)
6. 공부 등한시	2(1.35)
7. 곤란한 상황	2(1.35)
8. 기타	2(1.35)
총 계	148(100%)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자기통제나 조절을 하지 못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보다는 타인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물질적 심리적 해를 입히거나 사회적 규범(예절, 질서 등)을 어겼을 때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개인적 기준보다는 사회적 요구나 기대 등의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기존의 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정서에 대한 귀인으로 보고 있지만, 대부분이 사회적 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 것을 나타냈다(표 3 참조). 두 번째로는 수치스럽게 때문에 부끄럽다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표 3. 부끄러운 이유 응답 내용 및 빈도

응답 내용 및 범주	빈 도(%)
1. 규칙위반	53(29.44)
1) 사회적 규범에 위배	16(8.89)
2) 도덕질이기 때문에	15(8.33)
3) 지금껏 배운 것에 위배	14(7.78)
4) 도덕성 위배	8(4.44)
2. 수치	52(28.89)
1) 잘못이 공개되어서	26(14.44)
- 잘못이 결려서, 타인을 의식해서	2(1.11)
3. 자기기만	23(12.78)
1) 내 가치관에 위배	9(5.00)
2) 비양심	9(5.00)
3) 이기적, 의도적	5(2.78)
4. 거짓말	19(10.56)
1) 거짓	8(4.44)
2) 남을 속였기 때문에	7(3.89)
3) 언행일치를 못해서	4(2.22)
5. 후회스러운 행동	19(10.56)
6. 무례	12(6.67)
- 부모님께 잘못해서, 웃어른께 무례	
7. 기타	2(1.11)
총 계	180(100%)

이는 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에 부끄럽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다 든다, 거짓말을 해서라든가, 이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을 나타냈다. 따라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이나 사건과 그 이유는 대부분이 사회적 측면에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부끄러움은 자괴적 측면보다는 타인의식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도덕적 판단이나 추론 및 도덕적 감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판단 근거 중 하나인 타인(혹은 사회)에 대한 피해나 불편을 주었는지에 대한 반응에서는 응답자들이 부끄러운 일도 타인에게 물질적이거나 심리적인 피해를 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12.75%였다.

또한 그러한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아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35.17%)가 필요없다(32.89)보다 약간 더 많았고, 이미 대가를 치렀다가 22.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부끄러운 감정을 느낀 행위에 대한 이유 및 정당화, 타인의

피해 여부 및 책임과 처벌 유무 등의 도덕적 추론 과정을 보았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행동은 비도덕적인 판단을 요하는 도덕적 정서라고 할 수 있으며, 부끄러움은 사회규범이나 대인관계속에서 예의나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느끼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블러일으킬 수 있게 조작한 네 가지 각본은 비도덕적 행위와 개인의 이기심에 의한 공익의 저해,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적합한 능력 결여,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정서 반응의 차이와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했다.

표 4. 부끄러운 일의 타인 피해 불변 응답 내용 빈도

응답 내용 및 범주	빈 도(%)
1. 물질적 피해를 주었다	46(30.87)
1) 낯(버스 운전사, 가게주인)	30(20.13)
2) 가까운 사람(가족, 선생님, 친구)	10(6.71)
2. 남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이다	42(28.19)
1) 불편을 주는 일이었다	30(20.13)
2)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다	12(8.05)
3. 피해를 주지 않았다	19(12.75)
1) 전혀 주지 않았다	20(13.42)
2) 주었을 수도, 주지 않았을 수도.	6(4.03)
4.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	19(12.75)
1)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8(5.37)
2) 성적 때문에 피해를 주었다	5(3.36)
3) 걱정을 끼쳐드렸다	3(2.01)
4) 죄송스럽다	3(2.01)
5. 신뢰를 깨뜨렸다	14(9.40)
1) 불신을 심어주었다	8(5.37)
2) 실망을 시켜드렸다	6(4.03)
6. 기타	2(1.34)
총 계	149(100)

표 5. 책임/처벌 응답 내용 및 빈도

응답 내용 및 범주	빈 도(%)
1. 처벌 필요하다	51(35.17)
1) 처벌이 필요하다	44(29.53)
2) 반성할 필요가 있다	7(4.70)
2. 처벌 필요없다	49(32.89)
1) 처벌이 지나치다	28(19.31)
2) 처벌은 필요없다	18(12.41)
3)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3(2.07)
3. 대가를 치렀다	32(22.07)
1) 반성했다	15(10.34)
2) 나름대로 다른 것으로 보상했다	11(7.59)
3) 처벌을 받았다	6(4.14)
4. 받은 처벌이 너무 과했다	12(8.28)
5. 기타	1(0.69)
총 계	145(100)

방 법

조사대상자

경기도 소재 종합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43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1세(표준편차 4.04)였고, 남학생 204명(47.3%), 여학생 227명(52.7%)이 참여하였다. 응답자 중 402명이 핵가족 형태였고, 기독교 129명(29.9%), 불교 57명(13.2%), 천주교 52명(12.1%), 기타 193명이었다. 조사는 2002년 10월 16일부터 10월 22까지 실시되었다.

도구 및 절차

일상생활속에서 부끄러움이나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는 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 사회규범을 저버리는 행위, 대인관계속에서 지켜야할 예의나 도리를 지키지 않은 행위 등 다양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상황을 설정하여 두 가지 형태(유형 1, 2)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형 1은 도덕적 판단을 요구하는 행동 각본(script)이고, 유형 2는 이 각각의 행동 각본에

요약하면, 부끄럽게 생각되는 일은 도덕적 판단을 요구하고, 도덕적 판단은 사회적 가치나 규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부끄러움은 대인관계속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책임이나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도덕적 정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 문화권에서의 연구에서와 같이 부끄러움은 자기지향적인 측면보다는 타인지향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 3

도덕성과 도덕적 감정에 관한 세 번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의 도덕적 판단 및 도덕적 정서 반응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네 가지 각본을 읽고 행위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이유를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자기 지향적인 혹은 타인지향적인 부끄러움을

상대방이나 타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 대한 각본이었다. 유형 1을 변형하여 사용한 이유는 도덕성 관련 정서들이 타인 의식적인 혹은 지향적인 특성이 있음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먼저 개인의 양심에 따라 비도덕적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 1(유형 1)은 다음과 같다; K는 길에서 우연히 지갑을 주었다. 지갑 안에는 신분증과 돈이 들어 있었다. K는 돈을 갖고 지갑은 버렸다(유형 2. 그런데 이 장면이 지나가던 친구에게 목격되었다), 두 번째로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의 상충하는 상황 2는 K는 밤이 되길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옆집에 쓰레기를 갖다 버린 상황으로, 유형 2에서는 그런데 그만 감시카메라에 찍히고 말았다 는 각본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따른 능력 유관 상황 3에서 K는 대학의 교수이다.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설명을 듣고 질문을 했는데, K는 그 학생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 와 그런데 이 사실이 학교 전체 내에 소문이 나고 말았다 의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하였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도리를 상정한 상황 4에서는 K는 어머니께 교과서를 산다고 하고 돈을 받았다. 그러나 교재는 사지 않고 친구들과 놀며 그 돈을 모두 써버렸다 (유형 2. 그런데 이 사실이 어머니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는

각본을 사용하였다.

질문 문항은 개방형과 Likert 5점 척도를 병용하였는데, 먼저 각 행동 각본을 읽고 무엇을 느끼는지, 그 느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논의

길에 떨어진 주인없는 지갑 스크립트(상황 1) 유형 1의 반응 결과는 감정반응 221가지 중 56 개의 부끄러움 반응이 나타났고, 그 평균값은 4.36이었으며, 유형 2는 부끄럽다고 반응한 빈도가 144였다(평균 4.49). 두 유형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1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이유로는 남의 돈이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이 되기 때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결과되었고, 유형 2의 부끄러움에 대한 정서귀인은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도덕한 일이기 때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를 몰래 투기하는 상황 2에서는 부끄러움 반응에 대한 유형 차이가 나타났는데($F(1, 265) = 11.20, p < .01$), 투기 행동을 누군가가 보았을 때 더욱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끄러움에 대한 정서귀

표 6. 상황별 피험자 분포, 반응 유형 및 평균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유형 1	유형2	유형 1	유형 2	유형 1	유형 2	유형 1	유형 2
응답자	221	210	221	210	221	210	221	210
남 성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여 성	119	108	119	108	119	108	119	108
정 서 (빈도순)	부끄럽다 기쁘다 기쁨(양가) 양심의 가책	부끄럽다 부끄럽고... 창피하다 당혹스럽다 양심의가책	부끄럽다 부끄럽고... 기쁘다 미안하다 양심의가책	부끄럽다 부끄럽고... 창피하다 짜증난다 죄책감	부끄럽다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럴 수 있다	부끄럽다 부끄럽고... 창피하다 담담하다 부끄럼양가	죄송하다 미안하다 부끄럽다 슬프다	죄송하다 부끄럽다 조금 죄송 죄송... 미안하다
정서 귀인 (부끄러움)	남의 돈 양심의 가책 주인생각 울지못한일	양심어긋남 부도덕한 일 평가나빠짐 울지못한일	나쁜 일 양심가책 남에게피해	남이봐서 울지못한일 부도덕한일 내자신실망	기대미흡 사람들앞 의무불이행 준비미흡	의무불이행 능력부족 기대미흡 소문	거짓말 부모고생 부모속임	거짓말 어머니속임 부모속임
부끄러움 평 균	n=56/221 4.36(.80)	n=144/210 4.49(.77)	n=109/221 4.24(.71)	n=157/210 4.52(.68)**	n=171/221 4.26(.86)	n=133/210 4.14(.85)	n=39/221 4.0(.73)	n=45/210 4.22(.79)

부끄러움 집단내; 상황 1-3**, 1-4**, 2-3**, 2-4**

부끄러움 집단간; 성차 남자(4.41)-여자(4.03)*

* $p < .05$, ** $p < .01$

인은 그러한 행동이 나쁘기 때문에,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역할 및 지위에 따른 도덕성-능력 체면(최상진, 2000; 최상진, 김기범, 2000)에 관한 스크립트 3에서는, 교수가 기대되는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러한 정서는 기대미흡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스크립트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를 속였을 때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부모가 알았을 때를 상정한 것으로 부끄러움 보다는 죄송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끄러움에 대한 유형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끄러움의 이유로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속였기 때문에 등이 가장 많았다. 다만,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욱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자 = 4.29, 여자 = 3.92, $F(1, 83) = 4.27, p < .05$).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판단을 요구하는 네 가지 스크립트에 대한 부끄러움 정서 반응의 집단내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상황 1과 2가 상황 3과 4보다는 더 부끄러운 것으로 나타났다($F(3, 105) = 7.83, p < .01$). 이러한 결과는 유형에 관계없이 나타났는데, 부끄러움은 대인관계 윤리도덕에 어긋나는 일 뿐만 아니라 범규범이나 인간의 도리에 관련된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일에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끄러움의 정서는 자의식적 측면보다는 타인의식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판단은 사회구성원들이 그 문화권에서 지극히 당연시되고 있는 사회규범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루어지고, 그러한 판단은 행위에 대한 평가 즉 정서적 판단에 의해 활성화되며, 정서적 반응은 내재화된 도덕적 가치에 위배되고 있음을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 및 평가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도덕성과 양심의 발달의 준거가 되는 도덕적 자기로서 염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나 준거에 의해 자신의 행위나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판단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면접의 방법과 개방형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잘못했다거나 나쁜 행동이라고 평가하는 비도덕적 행위들은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하는 도덕적 가치나 당위에 의해 판단되는데, 그러한 가치나 당위성은 사회적 측면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도덕성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감정적 반응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도덕성에 관한 기존의 합리적 모델에서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추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관점과 대비되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 추론은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진 후 구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Haidt, in press; Shweder & Haidt, 1993).¹⁰⁾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나 사건을 지각했을 때 우리는 보통 직관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데 이러한 과정은 그러한 사건이나 행위가 비도덕적인지 혹은 도덕적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한 평가는 감정 반응에 의해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자의식적이면서 동시에 타인의식적인 측면이 강한 도덕적 정서인 부끄러움에 초점을 맞추어 언제 그러한 정서를 느끼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그러한 정서 반응과 평가가 도덕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추론과정을 통해 알아보았다.

일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며 그때 무엇을 느끼는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혹은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부끄러운 일은 비도덕적인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그렇다 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대인관계 윤리규범을 예로부터 강조해왔는데,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 단위에서 지켜야 할 예의나 도리를 내면화하여 지키는 것을 사람이 해야 할 일로 여겼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예의염치가 없는 나쁜 사람 혹은 못된 사람으로 평가되어왔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은 수치감을 느끼거나 부끄

10) Haidt(in press)은 합리적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직관모델(intuitionist model)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개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사적 추론보다는 사회와 문화의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모델은 또한 도덕적 판단은 일반적으로 빠르고 자동적인 평가(직관)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연구에서 도덕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이나, 행위 및 행동들이 부끄러운 정서반응을 수반하고 있고,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대부분이 대인관계에서 기대되거나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윤리-규범을 어겼다는 인지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끄러운 일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그 책임 또한 행위자에게 있으며 처벌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부끄러움의 정서 반응은 사회적으로 내재화된 도덕적 가치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정서적 평가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들을 통해 얻은 결과는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의나 도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리고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 비도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러한 비도덕적 판단은 부끄러움이나 미안함 등의 타인지향적인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판단과 정서적 반응은 물건을 훔쳤다가, 파손했을 때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한국사회의 대인관계 윤리규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비규범적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기 반성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과정은 도덕적 자기로서 염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반성적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감정이 부끄러움이나 미안함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행위나 사건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평가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 의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나 사건이 도덕적 가치를 위배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도덕적 가치는 사회 규범적 특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이미 사람과 세상에 대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혹은 공유된 가정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가정들로 하여 자신들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대인관계 맥락에서 기대되는 행위 규범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는 행위자에 대한 평가는 곧 그 사람의 됨됨이가 부족함을 뜻하고, 이는 염치가 없는 사람 혹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평가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에 관한 기존의 보편론적인 인지 발달적 관점보다는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세계관 및 인간관이 어떻게 문화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과 인간관이 도덕적 증거 및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논했다. 또한 도덕적 판단이나 증거는 인지적인 측면보다 정서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극히 제한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도덕적 주체로서의 염치를 면접과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서로 연계시켜 추론하는 방법으로 규명하려 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의 도덕적 증거로 염치를 들었는데, 염치와 양심과의 관계를 뚜렷이 밝히지 못하고 있고 도덕적 정서로서 부끄러움과 수치 및 죄책감간의 관계를 다루지 못했다. 또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의 차이는 자기가 관여되었는지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Tangney, 1991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더불어 도덕적 판단이나 증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차 변인 또한 도입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 (2002). 한국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 죄책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5(1), 35-55.
- 김기범 · 김시업 · 김양하 (2002). 대인관계 도덕성과 도덕적 감정의 관계 : 도덕적 self로서의 염치와 도덕적 감정으로서의 부끄러움.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3-17.
- 김기범 · 최상진 (2002). 정마음 이야기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2), 29-50.
- 김기범 · 김경호 (2002). 잘난 체하는 사람과 못난 체하는 사람 : 인상관리 동기 및 관계선호도 차이 분석. *한*

- 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87-97.
- 고미숙 (2000). 도덕성의 세 가지 측면(인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의 구분에 따른 도덕교육의 오해와 이해. *교육철학*, 23, 1-26.
- 정미연·정옥분 (2001). 고등학생의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0), 187-204.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2), 275-292.
- 최상진·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 한규석·최송현·정옥 (2001). 한국인의 사람 판단 차원 : 된 사람과 난사람. *한국심리학회지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229-234.
- 한글학회 (1994). *우리말 큰사전*. 서울 : 어문각.
- 한명희 (1979). 도덕성 요인으로서의 정서의 역할과 교육. *교육학연구*, 17(2), 107-119.
- Barresi, J. (1999). On becoming a person. *Philosophical Psychology*, 12(1), 79-98.
- Barrett, K. C. (1995). A functionalist approach to shame and guilt. In J. P. Tangney & K. W. Fis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pp. 25-63).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Baron, J., & Miller, J. G. (2000). Limiting the scope of moral obligations to help : A cross-cultural investig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6), 703-725.
- Bergman, R. (2002). Why be moral? A conceptual model from developmental psychology. *Human Development*, 45, 104-124.
- Brabeck, M. M. (1997). Moral psychology. *Journal of Moral Education*, 26(2), 223-226.
- Burr, V. (2002). *The person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y Press.
- Dien, S. S-f. (1997). Worldviews and morality : How do they intersect? *Human Development*, 40, 345-349.
- Eisenberg, N. (2000). Emotion, regulation, and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665-697.
- Fisher, K. W., & Tangney, J. P. (1995). self-conscious emotions and the affect revolution : Framework and overview. In J. P. Tangney & K. W. Fis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pp. 3-22).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Haidt, J. (in press).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 Haidt, J., Koller, S. H., & Dias, M. G. (1993). Affect, culture, and morality, or is it wrong to eat your do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4), 613-628.
- Haste, H. (1993). Morality, self, and sociohistorical context : The role of lay social theory. In G. G. Noam & T. E. Wren(Eds.), *The moral self*(pp. 175-208). Cambridge, MA : The MIT Press.
- Jensen, L. A. (1997). Different worldviews, different morals : America's culture war divide. *Human Development*, 40, 325-344.
- Kim, K., & Yamaguchi, S. (1996). The difference in moral judgement and percep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Paper presented at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June 27-29, Korea*.
- Kohlberg, L. (198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CA : Harper & Row.
- Lidz, T. (1968). *The person*. New York : Basic Books.
- Miller, J. G. (1997). Understanding the role of worldviews in morality. *Human Development*, 40, 350-354.
- Miller, J. G., & Bersoff, D. M. (1994). Cultural influences on the moral status of reciprocity and the discounting of endogenous motiv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92-602.
- Miller, J. G., & Bersoff, D. M. (1998). The role of

- liking in perceptions of the moral responsibility to help : A 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4, 443-469.
- Montada, L. (1993). Understanding oughts by assessing moral reasoning or moral emotions. In G. G. Noam & T. E. Wren (Eds.), *The moral self* (pp. 292-309). Cambridge, MA : The MIT Press.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M. Gabain, Trans.) New York : Free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32).
- Shweder, R. A. (1991). *Thinking through cultures*.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Shweder, R. A., & Haidt, J. (1993). The future of moral psychology : Truth, Intuition, and the pluralist way. *Psychological Science*, 4(6), 360-365.
- Sternberg, D. I. (1982).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A review article. *Journal of Asian Studies*, 42(1), 90-104.
- Tangney, J. P. (1991). Moral affect :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8-607.
- Tangney, J. P. (1995). Shame and guil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J. P. Tangney & K. W. Fis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 (pp. 114-139).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Velleman, J. D. (1999). Love as a moral emotion. *Ethics*, 109, 338-374.
- Wren, T. E., & Noam, G. G. (1993). Introduction : Building a better paradigm. In G. G. Noam & T. E. Wren (Eds.), *The moral self* (pp. 7-11). Cambridge, MA : The MIT Press.

Interrelationship between Morality and Moral Emotion : An Analysis of *Yeum-Chi* as Moral Self and Shame as Moral Emotion in Korean Culture

Si-Up Kim and Kibum Kim

Kyonggi Universit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emotion and moral judgement. There have been two issues concerning moral judgement in psychology. The first one is cognitive-structural perspectives on moral development. The other one is sociocultural perspectives on moral judgement. Countries located in the northeastern Asia including Korea, Japan, and China, a cultural area of Confucianism, have established ethical canonicity of the unit relationship which is a fundamental feature of close human relations such as among family members, friends, and between senior and junior. In addition, ethics concerning this unit relationship is distinct from those of general-public human relations. In particular, *yeum-chi*(廉恥) ha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morality and propriety in Korean culture. The present authors conducted three studies through interview, open-format questionnaire, and moral script. In study 1, most interviewees reported wrong-doing behaviors i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most frequently answered reason was because they thought they broke interpersonal expectations and social norms. In addition, at that time there would feel shame and guilt. In study 2, most respondents answered they evaluated shameful behaviors as immoral and harmful ones. Also they had to be responsible for those behaviors and should be punished. In study 3, most subjects responded they felt shame and guilty in moral judgement required script. As a consequence, moral emotion such as shame and guilt feeling evoked moral cognition, which indicated doers evaluated shameful behaviors as violated one of their socially shared and internationalized moral norms and values.

Key words : moral judgement, moral evaluation, moral emotion, shame, interpersonal ethics

원고접수 : 2002년 12월 31일
심사통과 : 2003년 2월 17일